월급 적은 보건소는 싫어?

남구, 정원 1명 1년째 못구해…'알바 의사'에 주민건강 맡겨

광주시 남구가 보건소 의사를 1년째 구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당장 급한 마음에 '알바 의사'를 고용해 구민의 건강을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 의사의 급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 계약직 보건소 의사 1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의 의사 정원이 3명인 것을 감안하면 30% 이상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남구는 이 같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선책으로 '알바 의사'를 고용해 오전 진료를 맡기고 있다. 오후 진료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의사 2명이 번갈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남구는 광주, 전남의사협회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 심지어는 남구 직원들이 직접 의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급여가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 닥터'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7년 이상의 경력 의사(보건소 의사 응시자격)의 경우 남구에서 받는 연봉이 5000만~6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3000만원~5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보건소 의사 부족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전에 '전문직'으로 분류되던 보건소 의사들이 지방계약직으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1년차 급여가 적용,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병원 페이 닥터들이 연차가 높아질수록 경력을 인정받아 급여가 오르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다른 자치구 보건소의 일부 의사들이 이직을 고민중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 최근 자치구들은 의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실태"라며 "조만간 재공고를 내 빠른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100만명 돌파할 듯 '2012 국제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기농업관에서 농산물과 함께 전시된 오방색의 천연염색 조형물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농업박람회에는 연일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25일께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저소득층 교육비 주민센터서 접수

한번 신청으로 계속 지원

저소득층 학생은 내년부터 학교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하다가 수혜 대상인 것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초·중·고교가 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업무를 내년부터는 주민센터가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시군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가정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나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 지원대상자를 알려준다. 해마다 교육비를 신청하게 하던 것도 개선해 한 차례만 접수하면 수혜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확도 논란이 있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 소득·재산 기준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뜸 06시 45분 / 해짐 17시 48분 · 달뜸 13시 57분 / 달짐 00시 13분

머플러 챙기세요

대체로 맑지만 찬바람 부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광 주	맑음	9/17℃
목 포	맑음	10/16℃
여 수	맑음	11/18℃
나 주	맑음	7/18℃
완 도	맑음	11/18℃
구 례	맑음	6/18℃
강 진	맑음	6/18℃
해 남	맑음	8/18℃
장 흥	맑음	8/18℃
순 천	맑음	5/17℃
영 광	맑음	7/17℃
진 도	맑음	9/17℃
전 주	맑음	7/17℃
군 산	맑음	6/15℃
남 원	맑음	5/17℃
흑산도	맑음	13/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8:15 21:08	01:30 13:37
여수	03:39 16:41	09:33 23: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최저/최고	7/19	11/20	13/21	14/19	13/18	9/17

고졸 직장인, 일하면서 학위 받게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생긴다

내년부터 4개 학과

고졸 직장인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위한 전용 학과가 내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업과 해양수산 등 4개 분야의 '재직자 특성화 학과(가제)'를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에 두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수요가 높은 4개 학과를 만들게 하고 내년 각 학과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들의 수가 적은 만큼 학과들은 여러 개의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농인을 위한 농학과라면 한 대학에서 이론 수업을 듣고 주말이나 농한기 등에 다른 대학의 농장에서 실습과정을 집중 이수하는 형태다. 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배려해 주중 사이버 수업, 주말 집중 강의, 학기당 이수학점 자율선택 등의 학사 유연화도 강조된다.

또 고졸 직장인이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전공과정을 밟기 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일정 기간 예비 교양 과목을 듣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없이 서류와 면접 등으로 선발하며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산업체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전문대는 2012학년도 23곳에서 2013학년도 67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 '부당 수의계약·세금누락'

市 감사 적발 '기관경고'

광주 서구청이 부당한 수의계약과 세금 누락 등 부적정한 행정을 해오다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서구청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해 최근 감사를 한 결과, 총 35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으며 일부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서구청은 알코올상담센터 민간 위탁사업자를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사정비사업과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해 13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청구 기한을 넘겨 부가세 1억9900여만 원을 환급받지 못했으며 건물 수리분 매입 부가세 2400여만 원도 환급 청구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세무행정이 6건이나 적발됐다.

서구청은 또, 경찰서로부터 사행행위로 통보받은 11개 업소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4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2월 청사를 준공한 지 4개월 만인 올 4월엔 9300만 원을 들여 구의회 청사 내 의원들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했다.

구청 모 공무원이 훈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0.5점을 감점하지 않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대면심의'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총 4차례에 걸쳐 '서면심의'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공무원 61명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받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서구청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시는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사업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 ▲생활체육시설 지킴 도우미제 운영 ▲원터치 종합안내시스템 개발 운영 등 4건을 서구청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고교생 학비 보조금 전국 '꼴찌'

학생 1인당 56만원 꼴…광주도 106만원 최하위권

박혜자 의원 교과부 국감

광주와 전남지역 고교생에 대한 교육 당국의 학비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학생 195만 1894명 중 40만 6943명이 1인당 104만1000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4천237억 8633만원이다.

광주지역 고교생 1인당 학비 지원 금액은 106만 원으로 인천 124만 원, 울산·대구 각 121만 원, 서울 114만 원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도 지역 중에는 전남이 56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원 금액만 놓고 보면 경기(131만 원)와 전남의 격차는 거의 2배에 달했다.

고교생 전체 학생 수를 지원학생 수로 나눈 학비 지원 비율에서는 광주가 15.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20.8%였다.

박혜자 의원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차원에서라도 지원 비율이나 금액이 낮은 지역은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